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2. 1.(목) 11:00 < 2.2.(금) 조간 > 배포 2024. 2. 1.(목)

# 오타와그룹과 세계무역기구 개혁방안 논의

-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계기 성과 도출 위해 협력키로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1일(목), 화상회의로 개최된 오타와그룹*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. 금번 회의는 제13차 세계무역기구(WTO) 각료회의(MC-13, 2.26(월)~29(목), 아랍에미리트)의 주요 의제를 점검하고 WTO 개혁 등 성과 도출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* 오타와그룹 : WTO 내 중견 회원국 중심의 개혁 소모임 그룹으로서, 호주, 브라질, 캐나다, 칠레, EU, 일본, 케냐, 한국, 멕시코, 뉴질랜드, 노르웨이, 싱가포르, 스위스, 영국 등 총 14개 회원국

오타와그룹 통상장관들은 2024년 분쟁해결제도를 정상화 완수를 위해 진행 중인 비공식 개혁 논의를 토대로 금번 각료회의 계기 유의미한 성과 도출 방안과 함께, 산업정책·기후변화·포용성 등 글로벌 무역 도전에 대한 심의기능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. 또한,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관행 연장 문제, 투자원활화 등 복수국 간 협상의 성과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.

특히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제13차 각료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(WTO) 분쟁해결제도 개혁, 심의기능 강화 등에 대한 오타와그룹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역설하였다. 또한, 금번 각료회의 계기 투자원활화 복수국 간 협상이 세계무역기구(WTO) 협정 편입 등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오타와그룹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,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관행이 반드시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.



| 담당 부서 | 다자통상법무관<br>세계무역기구과 | 책임자 | 과 장 | 윤정원 (044-203-5920)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정지선 (044-203-5922) |

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**붙 임** **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개요**

□ 일시 및 장소

○ ‘24.2.1.(목), 21:30~23:30 / 화상회의

□ 의제

① MC-13 의제 점검 및 오타와그룹의 성과 도출 지원 방안

②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

□ 참석자

○ 오타와그룹 14개 회원국 통상장관* 및 WTO 사무총장

* 한국: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, 캐나다(주재국): Mary Ng 국제무역장관 등